

완도 청산도로 단풍 구경 오세요

20일 절정...진산리~지리 3km 단풍길 장관

군,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해 경관조명 설치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물드는 청산도 단풍이 오는 20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은 화려하게 물들었던 단풍이 지고 있지만 완도 청산도는 11월 중순부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가을 단풍 예측 지도'에 따르면 완도가 가장 늦고, 완도에서도 청산도의 단풍이 가장 늦게 물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청산도 단풍코스는 슬로길 9코스로 진산리~국화리-지리~도청마을까지 걸어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쪽빛 바다를 조망하며 걷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다.

특히 진산리에서 지리까지 약 3km 도로 양쪽에 약 30년 된 단풍나무터널이 장관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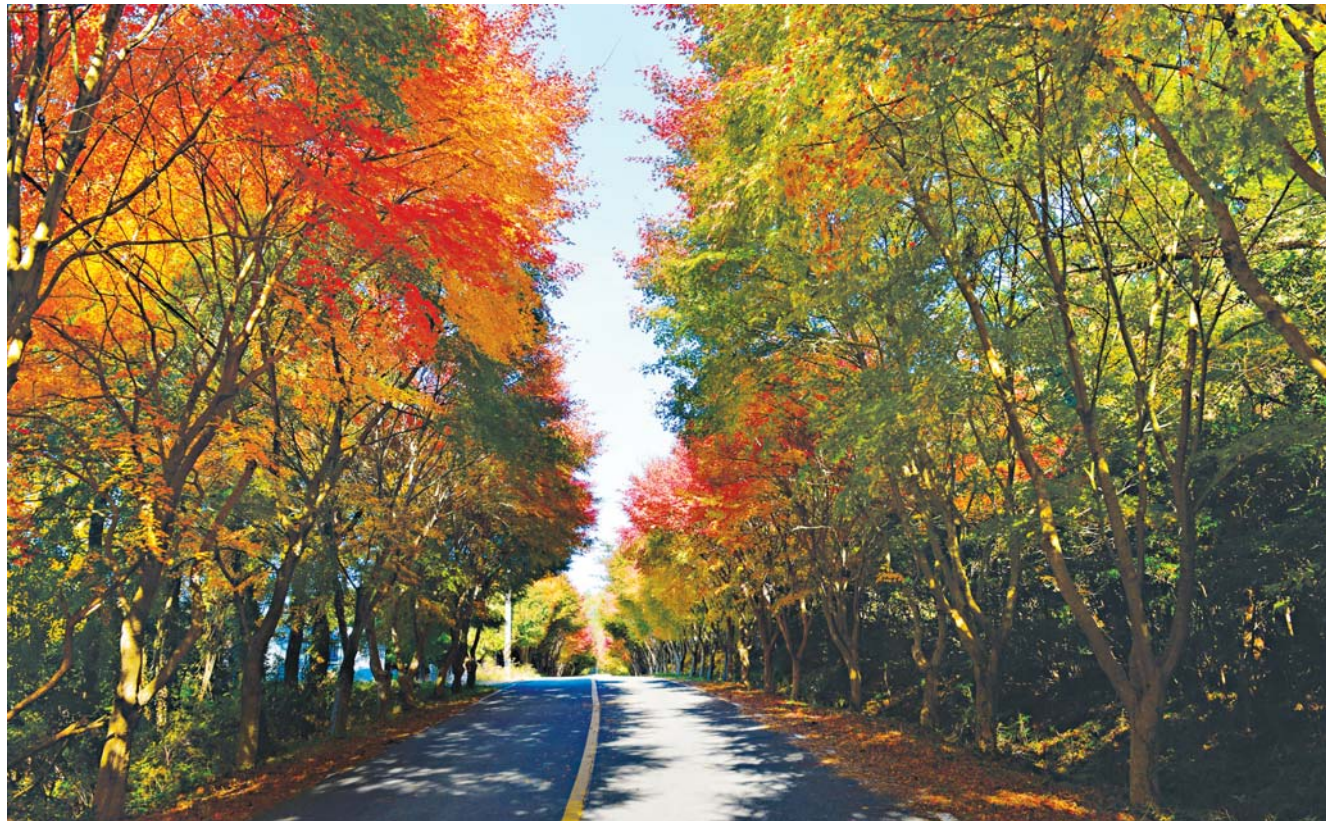
1년에 한번 볼 수 있는 섬 단풍길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올해도 오는 21일 가을 단풍길 출사에 나선다.

청산도 단풍길이 조성된 배경도 흥미롭다.

'어번기로 몹시 바쁜데 청산도 야생새들이 육지로 단풍놀이를 떠나 섬에 남은 남정네들만 남아 불만이 쌓이면서 생각한 것이 단풍나무를 심자고 한 것이며, 단풍

길이 조성되고 나서는 야생새들이 단풍놀이를 가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완도군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단풍길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이색적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촬영된 청산도 단풍길 모습.

지속적으로 단풍길에 조명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산도는 사계절 매력적인 섬이며, 분주한 일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단풍이 드는 청산도에 들러 심신을 치유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세계 슬로길 제1호'로 공식 인증을 받은 청산도는 느리게 걸으며 경치를 즐

기기에 최적이다.

슬로길은 주민들이 마을간 이동하는 길로 풍경에 취해 절로 걸음이 느려진다는 뜻으로 슬로길이라 이름 붙여졌다.

완도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청산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동절기 기준 오전 7시 첫배를 시작으로 하루 6회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50분이다.

배편은청산농협(061-550-93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최규욱 기자

무안군의회, 남악·오룡 고교 신설 촉구

이정은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무안군의회가 최근 '무안 남악·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16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신도시 개발 가속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포화상태에 이른 무안 남악·오룡지구에 고등학교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 신설을 위한 지역사회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촉구하고자 나선 것이다.

건의안에서 의회는 남악 소재 중학교 졸업생의 32%만이 남악 유일의 고등학교인 남악고에 입학하고 있어 나머지 학

생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남악지구의 미입주 1,900여세대와 오룡지구 제1단계 및 제2단계의 계획인구 총 7,300여세대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즉각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이 없다면 지역 교육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의원은 "남악신도시의 계획인구가 모두 입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교육 대란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하루속히 고등학교가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제책한 건의안을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고교 신설을 위한 지원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진도 '청년 점포 챌린지 숍' 추가 개장

대파·울금·검정쌀빵 등 판매

진도군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챌린지 숍' 3곳을 추가로 개장했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으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진도읍 원도심인 아리단길 등 골목 상권의 특색 있는 음식과 체험거리를 접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챌린지 숍'을 개장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청년 점포 챌린지숍 운영으로 진도의 중심상권인 진도읍 남문로 아리단길 상가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진도의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한 음식 개발 판매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대표 골목 상권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로 개소한 3개소는 진도의 특산물인 진도대파, 울금, 검정쌀을 활용한 진도대파빵, 울금빵, 검정쌀단호박빵, 진

도대파국 등을 판매하고 있다.

청년 점포 챌린지 숍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진도의 특산품을 이용한 진도대파빵과 대파국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 무척 좋았다"며 "청년들이 자기 고장의 특산품을 이용해 음식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청년 점포 챌린지숍 운영으로 진도의 중심상권인 진도읍 남문로 아리단길 상가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진도의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한 음식 개발 판매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대표 골목 상권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

면사무소 직원들 나라사랑 실천 눈길

강진 작천면사무소, 현무공 김억추 장군 묘소 참배

강진군의 한 면사무소 직원들이 최근 직원 건강의 날을 이용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함께 무궁을 세운 김억추 장군의 묘소를 찾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강진군 작천면사무소는 최근 조경면장과 직원들이 4분기 건강의 날 행사를 관내 교동마을에 있는 현무공 김억추 장군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통상 건강의 날 행사는 가벼운 산행이나 직원 개개인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관례이나 이날은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찾는 데 주력했다는 게 조 면장의 귀띔이다.

이날 참배에는 장군의 묘소를 관리하고 있는 12대손 김기정 응(89)의 안내로 진행했다.

현무공 김억추 장군은 강진군 작천면 박산마을 출신이다. 임진왜란 때 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명량대첩 등을 승리로 이끌었다.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67호(2020년

6월19일 지정)인 현무묘는 138년 전에 김억추 장군의 덕행과 충절을 기리는 종가의 별묘다. 임금이 장군의 충절을 높이 평가해 만들어진 부조묘는 현무묘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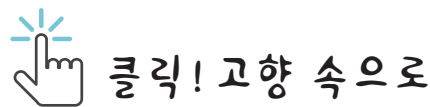
교동마을 입구에 있는 김억추 장군 신도비는 종 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관료의 치적을 알리는 것으로 130년이 지난 지금 비석기러리는 명칭이 생겨날 정도로 마을을 대변하고 있다.

작천면사무소 직원들은 묘소 참배 이후 발길을 옮겨 강진읍 영파리에 있는 금강사를 찾았다. 금강사는 전남도 지정기념

물 제91호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현무공 김억추 장군을 함께 기리는 사당이다. 현무공은 특히 활을 잘 쏘는 신공으로 당시에도 이름났다. 강진군은 이를 기려 해마다 현무공 김억추장군배 전국 궁도대회를 열고 있다.

조 면장은 "이번 참배를 통해 우리 고장 작천을 널리 알리는 홍보 도우미로서 앞장서 관광객에게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작천면은 내년 1분기 건강의 날 행사에는 작천 구상마을에 있는 황대중 장군 묘소 참배와 함께 강진군 향토유산 제19호인 양건당 중요정려각과 20호인 말무덤을 찾아 황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갈 예정이다. /이주연 기자



강진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부담 경감 '호응'

올해 초 강진군 성전면에 문을 연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역민들의 육아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농촌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됐다.

기존의 지역 아동센터와는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교생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양육의 부담이 큰 맞벌이 부부들의 이용률이 높다.

이승욱 군수는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한돈협회 무안군남부지부, 돼지고기 450kg 기부

무안군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업무로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돈협회 무안군남부지부에서 무안군청과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에 돼지고기 450kg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길오 한돈협회 남부지부장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방역업무에 전념하는 군청 직원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맛있고 안전

한 우리 한돈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으로 양돈 농가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목포, 민·관 합동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목포시가 최근 목포역 광장에서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교통안전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목포경찰서, 모범안전자회,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50여명이 참여해 불법주정차 금지, 안전띠 매기, 교통신호 및 규정 속도 준수 등 교통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5대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소화전 5m, 모퉁이 5m, 어린이보호구역) 홍보물을 배부하고 교통법규 준수 피켓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